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4년 2월 제287호 http://cnmhs.net

주식회사 대미농수산
대표 정 관 성 (17회)
010-5401-5090
대전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47 (용전동)
Tel (042) 638-4988 Fax 638-4983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정관성 편집인 : 임동현 인쇄인 : 민운기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총동문정기총회 3월 22일 화합의 장으로 열린다"

〈총동문회 제96차이사회〉 예결산 승인 후 김학만 동문(18회) 후임 회장 추대

총동문회 제96차 이사회가 2월 27일 오후 7시 대전 동구 태화장에서 열렸다.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먼저가신 동문선후배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이어 민운기 사무총장이 동문 소개를 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1회 오응수 송주영 심상정 고문, 3회 이우정 고문, 15회 서경원 고문과 정관성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동문들이 적극 후원해 주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화합하는 동문회로의 전통을 이어가자"고 인사했다.

제1호 의안으로 제22대 집행부의 2023년도 결산 보고가 있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과 22대 집행부가 노력하여 17회 동문들이 주관한 23회 총동문체육대회에서 1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여 2023년도 회계결산으로 4천만 원 이상을 잔액으로 이월하여 현재 일반회계 차기이월금 1억 4천여 만원, 특별회계 차기이월금 3억 7천여 만원 결산보고를 마쳤다.

제2호 의안으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제3호 의안으로 제23대 총동문회장 추대의 건이 상정되어 18회 김학만 동문이 추대되었다. 새로운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된 김학만 동문은 "선배님들을 잘 받들고 후배들을 사랑하면서 충기인의 자긍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동문회 제96차 이사회를 마치고 동문 선후배들이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이 이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차기 회장에 추대된 김학만 동문.

제4호 의안은 회칙 개정의 건으로 사무총장 임기 시작을 총동문회장 취임과 같은 날로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제5호 의안 정기총회 개최 일정 건이 상정되어 3월 22일(금요일) 오후 6시에 대전시 서구 마드리엘 웨딩컨벤션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기타 토의 안건으로 모교가 올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전국 10대 학교 선정되기 위하여 모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동문회TF팀을 마련하여 이종업 동문(14회. 전 모교 교장)을 팀장으로 선임하여 모교를 지원하기로 뜻을 함께 하였다.

– 임화섭(14회), 권오진(31회) 편집위원 –

2024년 제39회 정기총회 공고

올해는 모교 개교 61주년을 맞는 갑진년 입니다. 3만4천784명 동문의 발전을 기약하는 뜻 깊은 해에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 일 시: 2024년 3월 22일(금요일) 오후 6시
* 장 소: 대전시 서구 마드리엘 웨딩컨벤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정 관 성

“충남기계공고 키워드, 돈으로 못 사는 소중한 만남”

포항동문회 신년회 끈끈한 저력과 단합의 힘 과시

포항동문회(회장 김주국)는 2월 23일 저녁 6시 티파니 웨딩홀 4층 다미홀에서 신년회를 개최하여 포항동문회의 화합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올해 역시 신년회를 통하여 포항동문회의 저력과 단합의 힘을 보여주었다.

김주국 동문회장(14회)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모인 이 자리는 돈으로 빌릴 수 있지만 충남기계공고라는 이 키워드 하나로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누는 이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항동문회의 산 증인인 1회 조남간 선배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10회 김영식 선배의 “대 충남기계공고 발전을 위하여”라는 건배제의가 있었다. 9회 남승백 선배의 축하 화환과 특히 17회 김윤식(포스코 이사보) 동문이 출장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해 감사했다.

70여 명의 회원 중 교대 근무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조남간(1회), 김시절(9회), 남승백(9회), 김영식(10회), 함성재(10회), 육용현(10회), 오홍균(11회), 추인호(11회), 방장복(13회), 강문환(14회), 김동성(14회), 김주국(14회), 이상훈(14회), 윤석주(14회), 이요구(15회), 원상길(15회), 임화수(17회), 김윤식(17회), 고계수(19회), 이관호(20회), 문영철(20회), 김동로(20회), 이병로(22회), 이종필(24회) 동문이다.

포항동문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감진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다음 2분기 모임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신년회를 마감하였다.

– 김동로 포항동문회기획부장(20회) –

“향기로운 동반자 되게 해준 모교에 감사”

경기북부동문회 대보름맞이 척사(윷놀이)대회

경기북부동문들이 대회 직전 환하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북부동문회(회장 최기춘)는 2월 17일(토) 일산 풍동식당에서 동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고 두둥실 춤을 추면서 윷놀이를 즐겼다.

이날 참석한 30명의 동문들은 모두가 한마음 되어 환하게 웃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들 하셨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모든 이들, 가족, 형제, 동료 그리고 경기북부 충기동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 동문들이 걷는 향기로운 이 길에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모교에 감사할 뿐이다. 그 인연됨에 고맙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일이다.

척사대회 참석 동문은 송영호(3회) 선배님을 비롯해 최회재(5회), 김인기(7회), 김성수(8회), 김용진(11회), 유재환(11회), 강희창(12회), 이동희 (12회), 최성구(12회), 정인창(13회), 박희량(13회), 김태근(13회), 김승환 (14회), 최현국(14회), 김민철(14회), 최기춘(15회), 최용선(15회), 최재국 (15회), 류운선(16회), 현정배(17회), 한흥석(17회), 김경수(19회), 임채호 (20회), 임동현(21회), 양연호(21회), 오길수(22회), 박덕신(23회), 최중호 (24회), 길상인(25회), 강문식(28회) 동문 등 30명이다.

참가비는 각자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냈고, 물품 및 식대 찬조는 유재환(11회) 2차 식대 342,000원, 강희창(12회) 1차 식대 442,000원, 최성구(12회) 고급 은수저 2세트, 김태근(13회)소곡주 대병 3병, 김민철(14회) 마가목 담근주, 최기춘(15회) 수제 고급쿠션 2세트, 현정배(17회) 포천 막걸리 한 박스, 김경수(19회) 밍크솔트 5세트, 임동현(21회) 스벅쿠폰15장(15만원)과 홍어회무침, 3차 노래방 비용찬조 등이다.

한바탕 신나는 윷놀이 결과로 멋쟁이팀<김용진(11회) 정인창(13회) 박희량(13회) 김태근(13회) 최중호(24회)>이 우승하여 쌀 5포대를 상품으로 받았다.

이어 대전팀<최회재(5회) 김성수(8회) 김민철(14회) 최재국(15회) 류운선(16회)>이 준우승하여 밍크솔트 5세트를 받았고, 경우회팀<강희창(12회) 이동희(12회) 김승환(14회) 임채호(20회) 오길수(22회)>이 3위하여 스벅쿠폰 5장을, 의정부팀<송영호(3회) 김인기(7회) 유재환(11회) 최현국(14회) 현정배(17회)>이 4위하여 스벅쿠폰 5장을 각각 받았다.

이날 영광의 5위팀은 금산팀<최성구(12회) 최용선(15회) 한흥석(17회) 김경수(19회) 길상인(25회)>이 차지하여 무소유를 실천했다.

대회를 마치고 참가한 모든 동문들에게 광천김 1박스씩을 선물했다.

동문들은 내년 대보름을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뒤풀이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양팀 인사

잘 던져야 되는데

윷이다

야! 이겼다

“30년 넘는 긴 역사… 수도권 동문회 구심점 역할”

인천동문회 회장 이·취임식겸 신년모임

김창국 회장과 인천동문회 고문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그동안 수고해준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했다.

인천동문회는 회장 이·취임식 겸 신년모임을 인천시내 모 식당에서 1월 26일 개최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천동문회는 억척스러움과 다부진 동문들의 일련의 행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충기인다웠다”라고 말하고 싶다.

3회 선배로부터 29회 후배에 이르는 긴 시간 차를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공생하는 이 뿌리의 근원은 역시나 대선배님이 계셨기에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다. 유난히 10회 미만의 대선배님을 많이 모셨다. 인천 동문회의 크나큰 행운이며 수도권 동문회의 산파역할을 한 인천동회의 저력이다. 인천동문회에는 자랑스러운 충기인 전종현(12회) 전 회장님의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은 인천동문회를 가장 튼튼하고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계셨다. 이날 명품 수저세트를 후원하여 동문가족들을 기쁘게 했다.

인천동문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80년대 후반에 ’충인회’로 태동하였다. 인천동문회로 재정립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동문들의 삶에 희로애락을 담고 있었다.

인천동문회를 본보기로 수도권에 많은 동문회가 발족되었고 현재 서울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육정관(15회)서울동문회장도 인천동문회 출신이다.

전임 김창국(18회) 회장은 6년(18년~23년)이란 긴 시간동안 인천동문회를 이끌었다. 2023년 봄에는 수도권 동문 연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동문화합에 크게 기여하여 인천동문들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강신철(25회) 전임 총무를 비롯하여 김중현(12회) 동문과 심부름을 많이 한 김영수(22회) 동문도 감사패를 받았다.

2024년을 이끌 새로운 집행부는 회장 정희(20회), 수석부회장 진관섭(20회), 부회장 김봉호(21회), 부회장 김영수(22회), 부회장 류경환(22회), 사무국장 정광일(23회), 총무 김태열(29회)동문으로 꾸려졌고 역동적인 동문회로 거듭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심을 갖게 해주었다.

《연락처》

회 장 정희(010-4376-9884)

사무국장 정광일(010-3303-1463)

총 무 김태열(010-3785-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서울동문회, 신년모임 품격 더하다

대선배님들도 동참 약속 다음 모임 기대

서울동문회(회장 육정관)는 1월 30일 신년 모임을 겸한 1월 정기 월례모임을 갖고 “서울찬가”를 노래하였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새로운 삶을 찾아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만고 진리를 재확인하며 신연모임에 참석한 27명의 동문들은 푸르른 날개 짓을 위한 채비를 하였다. 평일 말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모였고 열정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참석한 회원은 나상원(4회), 조한규(9회), 김용진(11회), 유재환(11회), 권기대(13회), 이점규(14회), 육정관(15회), 최기춘(15회), 정상희(15회), 최선묵(16회), 오욱(16회), 조성서(16회), 임재록(16회), 김용만(16회), 권혁주(17회), 이만영(17회), 고동익(18회), 윤중길(19회), 노기종(19회), 임기현(19회), 임동현(21회), 송석진(21회), 이승기(21회), 이영주(22회), 박종선(22회), 최종필(23회), 박덕신(23회) 동문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사는 서울사람답게 가장 격조 높은 장소로 4성급 호텔을 예약하였다.

2024년을 이끌어가는 신임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멋진 장소가 물색되었고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권기대(13회) 동문의 색소폰 연주는 파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구경꾼들도 모여들었다.

식당 아주머니는 열성팬임을 자청하며 권기대 동문과 사진 찍기를 요청했다. 앵콜 앵콜이 이어졌고 5곡을 연주하였다. 지금껏 200여쌍의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었다고 했다. “동문자녀 혼사 시 요청만 하면 무료로 연주를 해주겠다”고 선언하였고 동문들은 환호하였다. 2차로 이어진 호프집에서도 대부분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밤이 늦도록 술잔을 부딪치고 떠들어대도 지치지 않았다. 정말 소중한 우리 동문들이었다. 서울의 달을 보고도 이젠 슬프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술과 안주를 서로 사겠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유재환(11회) 동문이 책임을 졌다. 다음 모임이 기대되었다.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5성호텔에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침 4회 나상원 대선배님이 왕림해 주셔서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더 많은 대선배님들이 오시겠다는 약조도 받았다.

서울동문회가 신년모임을 갖고 새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의 서울동문회가 아니다. 아직도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수많은 서울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해본다.

서울동문회 연락처 :

회 장 육정관(15회. 010-3779-6923)

부회장 윤중길(19회. 010-5406-6887)

총 무 박종선(22회, 010-5851-8234)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최신시설 갖춘 모교 운동장에서 친목과 건강 도모

충기FC 무사안전기원제 및 시축식 동문과 내빈 참석

그저 다치지 않고 재밌게 축구하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원제와 시축식을 지낸 후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충기FC(회장 김성기)는 2월 17일 모교 대운동장에서 2024년 한해의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2008년 창단된 충기FC는 매주 토요일 최신시설을 갖춘 모교 운동장에서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어 명실공히 충남기계공고 동문을 대표하는 동호회로 자리매김하였고 동문화합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가장 큰 행사인 총동문체육대회시에 충기FC 회원들은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현수막, 천막 설치, 대회 운영을 위한 각종 제반 활동을 도맡아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문회에서 정관성 회장과 민운기 사무총장이 방문하여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또한 21회, 22회 동문들과 김종천 동문(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K리그 김갑수,오희삼 심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식후에 구수한 김치찌개와 막걸리를 들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정담을 나누었다.

– 정찬희(22회) 편집위원 –

"앞으로 남은 인생 친구밖에 없다"

21회 전기과동문들 고(高)딩 시절로 고(go)

대전 은행동 지하상가에서 친구들이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동문회 발족 2년 만에 48명 총동문회 연회비 납부,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인 21회 전기과 친구들이 2월 8일 오후 대전 은행동 거리로 모두 모여들었다. 21회전기과동문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임원진들은 설 명절을 맞아 대전에 들렀거나 혹은 고향집을 가다가 겸사겸사 한자리에 모였다.

2024년을 이끌어가는 임원진은 제2대 전기과21회동문회장 강기환, 수석부회장(차기회장) 강전갑, 부회장 심은용, 이승하, 총무 김광수(1~2대 연임), 감사 오원석(초대 회장, 차기 당연직 감사) 동문이다.

충전 21회 동기들은 이해와 배려, 감사와 사랑, 겸손을 담아두고 살고 있었다. 고교동창회가 아닌 가족모임, 동지모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회비를 10만원 20만원으로 굳이 하지 않았다. 5만원이면 충분했고 누구나 부담이 없었다. 서둘러 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발견하지 못했다. 연 2회 정기모임을 하고 번개도 잦고 지출도 빈번한데 회비가 계속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손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애당초 그건 모임의 성격도 아니었다.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읊조린다. "우리 모임은 참 마음이 편하다"고… 친구야 우리 그렇게 살자.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최상위 멋진 중년의 삶에 박수"

스물회(20회 동문모임) 수원에서 올 첫 모임

올해로 21년째를 맞고 있는 스물회가 신년모임을 가졌다.

스물회는 2024년 첫 모임을 2월 7일 수원 망포동에서 가졌다. 20회 동문들의 스물회는 올해로 벌써 21년차를 맞았다. 수도권에 살던 동문들을 주축으로 2003년 발족하여 현재 22명이 함께하며 우정의 무대를 쌓아가고 있다. 현재 회장은 유철식 동문이 총무는 이상로 동문이 맡고 있다. 스물회 구성원은 공직에도 여럿이 있고 해외파를 비롯해 제조업에서도 크게 성공한 동문들이 두루두루 포진해 있다.

20회 동기들은 지금이 가장 멋진 나이다. 오십 후반의 최상위의 중년의 삶에서 그들만의 색깔은 유난히 찬란하였고 향기는 그윽하고 농후하였다. 20회는 차차기에 총동문회를 이끌어 갈 기수이다. 동문들의 아름다운 감동의 하모니가 계승되어 총동문회 무대에서도 높게 울려 퍼지기를 고대해 본다.

특히 충기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동문은 스물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상로(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장) 선배로 지난해 건축기계 설비분야에서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그 이상이다. 스물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충남기계공고,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 사활”

모교 TF팀 꾸려 동분서주 방산분야 집중, 동문들 적극 협조해야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우리 모교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반드시 선정되기 위해 충기인 모두 적극 협조해야 할 일이 절실하게 대두됐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구 급감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지역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등을 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전국의 특성화고교들이 ‘협약형 특성화고’선정에 들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가기 위해 동문회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권오진 모교 운영위원장(32회)은 “현재 모교에서는 협약형 특성화고 달성을 위하여 TF팀을 꾸려 동분서주 하고 있으나, 방산업체 특성화고 선정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체 또는 철도 산업 분야의 기업체와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총동문회에서도 TF팀을 만들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기업관계자, 지역 인사들과 만나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대전시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 교육부)

청룡의 해를 맞아 우리 모교가 비상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성원과 협조를 기대한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인생 후반기에도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14회 동문회 신년 정기 모임

14회 동문회(회장 백채준)는 년중 계획에 따라 신년 정기모임을 2월 16일 가졌다.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이 들어가며 찾는 친구들이 반갑다며 소담을 나눌수 있었던 즐거운 자리였고,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22일 모친상을 치른 허인범 재무는 문상에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특별기금을 백채준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대규정밀(금형 및 치간치솔 제조)을 운영하는 김광섭친구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참석한 친구 모두에게 1케이스씩 전달하는 훈훈함을 보여 고마움의 박수를 받았다. 정답고 즐겁운 자리는 4월 모임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했다.

– 허인범 14회 총무국장 –

“영동동문회 12명회원 가족같이 아기자기”

고향소식 기다리며 발전기금 전달

충북 영동동문회(회장 나채정 16회)에서 마음의 고향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30만원을 보내왔다. 대전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과거 열차 통학하며 다녔던 모교를 그리워하며 지역동문회 활동를 이어가고 있는 동문들은 나채정(16회) 회장, 배태철(21회) 총무를 비롯 김인섭(13회), 남동호(15회), 박창호(17회), 손재경(21회), 고관기(21회), 김웅수(27회), 김장환(27회), 이재원 (27회), 강구현(28회), 배재식 (28회)등 12명의 동문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동문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가을 가족동반 나들이 모습.

– 송예경 총동문회 총무 –

수입 현황

기간 : 2024년 1월 25일 ~ 2024년 2월 27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모교사랑" 자동이체

방	1	박만영	10,000
방	1	백운길	10,000
상	1	오응수	10,000
광	3	서한수	20,000
전	3	이우정	20,000
방	4	송석범	10,000
방	7	김민주	10,000
자	7	조봉호	10,000
광	8	김재겸	10,000
기	8	신도성	10,000
화	8	이원승	10,000
전	8	임헌표	10,000
자	8	정기원	20,000
전	9	임세환고문	10,000
전	9	임세환이사	10,000
방	9	진한종	10,000
방	10	김영갑	10,000
자	10	김창길	10,000
전	10	오창균(1월분)	10,000
전	10	오창균	10,000
자	10	이경세	10,000
전	11	강영천	10,000
전	11	김용진	10,000
전	11	박인삼	10,000
전	11	오연진	10,000
전	11	이진권(1월분)	10,000
전	11	이진권	10,000
광	11	조동호	10,000
기	12	김기섭	10,000
전	12	김기용	10,000
기	12	라기원	10,000
기	12	서영환	10,000
기	12	전종현	100,000
기	12	정찬목	10,000
기	12	천명재	10,000
기	12	황규표	10,000
기	13	마평춘	5,000
화	13	박대균	10,000
기	14	김병갑	10,000
기	14	백채준	1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14	임화섭	1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15	서경원	20,000
전	16	김희곤	10,000
기	16	양희대	10,000
기	16	윤석길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16	조성서	10,000
기	17	권오섭	10,000
기	17	김용택	10,000
기	17	김종수	10,000
기	17	김진덕	10,000
기	17	류승정	10,000
기	17	민운기	10,000
기	17	박기용(1월분)	10,000
기	17	박기용	10,000
기	17	박환정	10,000
기	17	백준현	10,000
기	17	서승영	10,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17	양희곤	10,000
전	17	오명진	10,000
기	17	윤재경	10,000
기	17	이상봉	10,000
기	17	정관성	20,000
금	17	정찬문	10,000
기	17	최현주	10,000
전	18	마수용	10,000
금	18	박수용	10,000
기	19	임운택	10,000
전	19	임형일	10,000
기	20	김동로	1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20	여명찬	10,000
전	20	윤성덕	10,000
기	20	이석래	10,000
기	20	차정운	10,000
기	21	김기영	10,000
기	21	김용근	10,000
기	21	문길수	10,000
기	21	박원종	10,000
배관	21	박찬권	10,000
기	21	송석진	10,000
기	21	오흥석	10,000
기	21	유호문	10,000
전	21	임동현	10,000
기	21	장명국	10,000
기	21	진춘식	10,000
기	21	한석원	10,000
배관	21	황경아	20,000
기	22	김갑수	10,000
기	22	김준수	10,000
전	22	박종선	10,000
금속	22	이구형	10,000
기	22	이영우	10,000
기	22	정기채	10,000
기	22	정연근	10,000
기	22	조영백	10,000
전	23	김은철	10,000
기	23	윤인섭	10,000
기	23	이봉준	10,000
기	23	이주한	10,000
기	23	임정호	10,000
기	23	최병무	100,000
전	23	최상현	10,000
기	23	한병수	10,000
전	24	김용석	20,000
기	24	김형찬	10,000
기	24	박종호	10,000
기	24	안영호	10,000
기	25	강신철	10,000
전	25	김종필	10,000
기	25	홍준용	10,000
기	26	김윤태	10,000
기	26	류한의	20,000
배관	27	김도진	10,000
기	27	송형태	10,000
기	27	이문휘	10,000
기	28	강문식	10,000
기	30	이정근	10,000
기	31	강두형	10,000
기	31	권오진	10,000
기	31	김태용	10,000
기	31	남지현	10,000
기	31	오선균	10,000
기	32	장진학	10,000
배관	33	김명수	10,000
기	33	오규성	10,000
기	33	이명호	1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33	전우창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전	34	김용정	10,000
전	34	김윤섭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기	37	박재현	20,000
기	39	김동연(1월분)	10,000
기	39	김동연	10,000
금형	52	이승원	10,000
기	53	이영욱	10,000

연회비 및 발전기금

광	1	강남선	20,000
방	1	강필규	20,000
상	1	권혁환	20,000
방	1	박성재	20,000
자	1	송주영	50,000
상	1	오응수	100,000
광	1	윤석원	20,000
자	1	이창우	20,000
방	2	백재식	20,000
광	2	신황덕	20,000
방	2	최병주	200,000
광	3	김영복	20,000
전	3	박광수	20,000
전	3	송의석	20,000
방	3	윤백현	20,000
전	3	윤여숭	100,000
자	3	이만근	20,000
전	3	이봉원	50,000
전	4	권수복	20,000
광	4	금기봉	20,000
전	4	김영환	20,000
전	4	라상원	20,000
자	4	민용기	20,000
전	4	박상규	20,000
전	4	박재훈	20,000
전	4	박주국	20,000
전	4	송중섭	20,000
자	4	육성균	20,000
자	4	윤재원	40,000
전	4	이강주	20,000
광	4	이재두	20,000
방	4	이치우	20,000
광	4	장희석	20,000
전	5	김영수	60,000
전	5	김재식	20,000
방	5	라길찬	20,000
전	5	오완세	20,000
광	5	이병호	20,000
전	5	이인성	20,000
전	6	강병섭	50,000
자	6	김기영	20,000
방	6	김상운	50,000
전	6	김인수	20,000
자	6	김태관	20,000
전	6	윤여봉	50,000
전	6	황재현	20,000
방	7	김봉규	100,000
방	7	류오열	20,000
전	7	서권한	20,000
전	7	안설호	20,000
방	7	오예진	20,000
광	7	이상선	20,000
전	7	이희배	20,000
전	7	전관수	20,000
자	8	남기용	20,000
전	8	배근석	50,000
자	8	복영규	20,000
전	8	손영남	20,000
전	8	손월호	20,000
전	8	이정권	20,000
전	8	이준규	100,000
방	8	이태용	20,000
전	8	임광혁	20,000
전	8	조성돈	20,000
기	8	최용신	20,000
자	9	권오정	20,000
방	9	김승제	20,000
기	9	김철웅	20,000
자	9	오경세	20,000
전	9	오옥균	20,000
기	9	유병락	20,000
방	9	윤병익	20,000
전	9	윤영선	20,000
자	9	정해산	20,000
기	10	권선웅	20,000
전	10	김병락	20,000
자	10	박지서	20,000
전	10	서호석	20,000
자	10	우대림	20,000
광	10	윤여갑	20,000
전	10	이용우	20,000
광	11	김종호	20,000
화	11	박대범	20,000
방	11	박영석	50,000
전	11	오덕환	20,000
전	11	오연진	50,000
전	11	이춘성	20,000
자	11	조길환	20,000
기	12	강영수	20,000
기	12	강희창	300,000
기	12	고성하	20,000
자	12	김용구	20,000
기	12	김지태	20,000
기	12	김홍국	20,000
자	12	민병기	50,000
기	12	박용진	20,000
전	12	박찬웅	20,000
광	12	송진만	20,000
기	12	신선옥	20,000
전	12	신종국	20,000
방	12	오세구	100,000
기	12	오승수	20,000
기	12	이광주	20,000
기	12	이승범	20,000
광	12	정승훈	20,000
방	12	조우찬	20,000
기	13	강민형	20,000
기	13	김성구	20,000
기	13	김천수	50,000
기	13	김홍래	20,000
기	13	서정호	100,000
기	13	송승용	20,000
전	13	이일섭	20,000
전	13	이주식	20,000
기	13	이천구	20,000
기	13	이형기	20,000
기	13	이형남	20,000
화	13	임오혁	20,000
기	13	한복수	20,000
기	14	길준석	20,000
기	14	김영훈	20,000
전	14	남용덕	20,000
기	14	박수범	20,000
기	14	백채준	50,000
기	14	서석우	100,000
기	14	양승권	20,000
기	14	엄필환	20,000
기	14	오승준	20,000
기	14	유한균	20,000
기	14	이종업	50,000
기	14	임화섭	100,000
화	14	정헌규	50,000
기	14	진인기	20,000
기	14	최영민	20,000
화	14	허무흥	20,000
화	14	허인범	50,000
기	15	김진옥	20,000
기	15	노영재	20,000
기	15	배재필	20,000
기	15	서경원	50,000
기	15	이근석	20,000
화	15	이석신	20,000
기	15	이재일	100,000
기	15	이중재	20,000
기	15	정두현	100,000
기	16	강경구	20,000
기	16	무기명1(연락바람)	20,000
기	16	무기명2(연락바람)	20,000
기	16	송상호	20,000
기	16	유병석	20,000
기	16	유이복	20,000
기	16	이상필	20,000
기	16	이순재	100,000
기	16	이재선	20,000
금	16	이재열	20,000
기	16	임상빈	100,000
기	16	최현주	20,000
기	16	황선영	20,000
기	17	강대기	20,000
배관	17	강영희	50,000
기	17	민운기	50,000
기	17	윤영문	100,000
기	17	이대연	30,000
기	17	이종우	50,000
기	17	임재중	100,000
기	17	정관성	500,000
기	18	김영하	20,000
기	18	문연환	20,000
기	18	신기현	20,000
기	18	신동현	20,000
전	18	오충석	20,000
기	18	윤병진	50,000
기	19	강정규	50,000
기	19	윤형중	20,000
기	19	이현철	20,000
기	20	구용환	20,000
전	20	김양환	20,000
기	20	이석래	20,000
배관	20	정광조	20,000
기	20	진승현	20,000
기	21	윤필중	20,000
기	21	최동준	300,000
전	22	김용만	20,000
기	22	박대식	20,000
기	22	이욱범	20,000
기	23	김복호	20,000
기	23	박광수	20,000
기	23	정구암	100,000
전	23	한진수	30,000
기	23	홍열표	20,000
기	24	안영호	50,000
기	24	김윤환	50,000
기	24	남광덕	120,000
기	27	배기병	20,000
배관	27	김도진	20,000
기	28	윤수원	50,000
기	31	권오진	120,000
전	34	공대성	100,000
전자	48	이동겸	20,000
기	49	원종선	20,000
단체		영동동문회	300,000
		무기명1(연락바람)	20,000
		무기명1(연락바람)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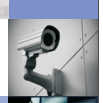
※1월회보에
전/7 무기명은
전/7 차연수 동문임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세종점 ☎044-867-2202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근로자파견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매연저감장치 DPF 건식클리닝
월드DPF클리닝 수리전문
세계특허 NFHTP 건식버닝 방식
대표 이남희 (9회) 010-5438-63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1
대표전화 1544-0572
FAX. (042) 934-2011
※ 토, 일요일에 예약가능 ※

(주)필엔텍 FIL & TECH
대표이사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220~222호)
TEL. (042) 626-8548
팩 스. (042) 626-8549

(주) 서한 ENC
MIURA 충청대리점
▪ 기계설비1종 설계 및 시공
▪ 열사용기자재 취급 및 시공
▪ 기계소방용품 및 안전용품 취급
▪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산업용 탱크 및 식품기계
차장 김 동 연 (39회)
010.9813.0139
042.935.0280
042.935.0281
starkjpn@naver.com
www.seohanenc.co.kr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9, B동 2층 202호

세무법인 이 정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북대전 · 대전세무서, 조세심판원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JEVISCO KCC 대연상사 제일테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번길(대화동)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9, 140호
Tel. 042·670·7877, 7233 / Fax. 042·670·7876
E-mail. jmi4415@hanmail.net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AIR DRYER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Total Air Solution Air Compressor HKMComp
대 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번길(대화동)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Tel. 042·670·8962, 042·623·8962 / Fax. 042·670·8963
E-mail: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1번길 13 (대화동)

싱크마스터
N : 싱크마스터
대표 이 승 원 (52회) 010-5823-2171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96번길 34
https://smartstore.naver.com/sinkmaster
주방기기
주방싱크볼
사각싱크볼
원앙, 아스타 네모
싱크볼, 교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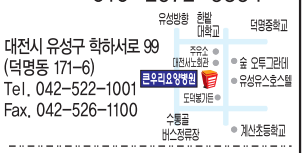
경우금속주식회사
【구리 동 파이프 판매업】
대표이사 강 희 창 (12회) 010-3568-632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129번길 10
TEL : (031) 946-9813~4
FAX : (031) 946-9815
E-mail : kyungwoo9815@naver.com

meritz 메리츠화재

FP/ 대전본부
오 규 성 (33회)
Mobile. 010-9551-0418
매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T.042-337-4004 F.042-337-4009
3490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빌딩 2층 www.meritzfire.com

HYUNDAI GENESIS
카마스터
이 용 주 (24회)
010-3404-6989
현대자동차
대전선화대리점
대전 중구 대종 545(선화동)
신차상담/할부/리스/렌트
TEL : 042-254-9000
FAX : 042-254-4000

큰우리요양병원
중풍, 치매,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 호스피스 전문

병원장 오 상 근 (6회) 010-2972-5354
대전시 유성구 학하서로 99 (덕명동 171-6)
Tel. 042-522-1001
Fax. 042-526-1100


사회복지법인 밀알 http://milalbj.or.kr
대표이사 오 상 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87 화성빌딩 4층
T. 042-627-0135 F. 042-716-7119
※후원계좌 : 하나 646-508185-00105 사회복지법인 밀알